

LG-D, 8세대 LCD 생산능력 확대

설비투자에 1조4800억원 추가 투입 ... 월 6만8000장 생산라인 증설

LG디스플레이가 마무리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파주의 8세대 LCD(Liquid Crystal Display) 단지의 추가 증설에 나선다.

LG디스플레이는 3월12일 이사회를 열어 1조4860억원을 투자해 월 6만8000장(유리기판 투입 기준)의 LCD 패널 생산라인을 증설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P8E+로 명명된 증설 라인에 기존의 P8라인이나 2010년 상반기에 완공되는 P8E 라인과 함께 2011년 상반기부터 55인치, 47인치, 32인치 등 TV용 패널을 주로 생산하게 된다.

현재 건설하고 있는 P8E 라인은 2010년 상반기에 가동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LG디스플레이의 8세대 LCD 생산능력은 월 28만8000장으로 늘어나 삼성전자(20만장)를 능가하게 된다.

권영수 LG디스플레이 사장은 “시황이 예상보다 좋아 증설이 시급하다”며 설비 증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현재 중국 정부에 요청한 8세대 공장의 허가 여부에 대해 “신청한 6사 가운데 2사에 대한 허가가 3월 말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가 생산능력 확장 결정은 중국공장의 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LCD 시장의 공급과잉 문제에 대해서는 “LED(Light Emitting Diode)나 3D 디스플레이 등 고기술 제품이 등장하면서 실제 생산이 보유한 생산능력만큼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가능성을 낮게 봤다. <저작권 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3/12>